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2월 3일 (제92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부모가 된다는 것

누구나 부모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노릇을 해야 진짜 부모다. 부모 노릇이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회 기획실 직원 중 한 자매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잠시 육아휴가를 냈던 직원이 다시 출근을 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나온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는 단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엄마가 길러야지.' 라고 훈계했다. 이 설교를 들은 그의 양가 부모님들이 '단에서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며 그에게 퇴사를 권했다고 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존경할만한 부모다.' 라고 감탄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육한다. 모유대신 분유를 먹이고, 엄마 품 대신 할머니 혹은 위탁모 품에서 키운다. 그래놓고 아이를 위한답시고 돈 벌기에 바쁘다. 어서 돈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

어느 맞벌이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 설교를 듣고는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다. 아내가 일을 그만 두자니 남편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하소연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소득이 적으면 아이를 낳기 전 계획을 세워야하지, 그러나 이왕 아이를 낳았으니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 내가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아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한다. 문제아가 문제가 아니라 낳기만 하고 제대로 기르지 못한 문제의 부모가 문제라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한다. 거기에서 인성이 갖춰지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새천년 이후 우리 교단이 해외로 선교의 가치를 뽐기 시작한지 18년째이다. 그동안 우리는 오대양 육대주 가운데 오세아니아(Oceania) 지역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1월, 우리는 육대주 가운데 마지막 지역인 오세아니아 주에 복음의 첫발을 내디뎠다.

호주(Australia) 시드니(Sydney) 집회는 향후 오세아니아 지역의 창대한 복음의 역사에 기초를 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집회는 한국에서 건너간 문정훈 목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시작되었다. 그야말로 땅의 기초를 파듯, 봄의 파종을 위

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 삶의 행동 지침으로 자리 잡게 해준 목사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지식이나 꾀가 아니라 미련한 무릎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종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사님은 10시간이 넘는 비행 중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내 목회 33년을 맞이하며 오대양 육대주 가운데 아직 발을 디뎌보지 못한 오세아니아 지역에 첫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인도하실지 기대와 흥분으로

도한 표적이 오후에 들면서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니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목사님은 "이것이 표적이다. 우리가 날씨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폭풍우가 몰려온다던 저 하늘 좀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 목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기예보 페이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놓았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호주 예수중심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환영하는 만찬을 준비해주었다. 그런데 이곳에 뉴질랜드(New Zealand)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종수 목사 가족이 나타났다. 그들은 유튜브를 통



호주 시드니 집회 광경

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자세로 시작된 셈이다. 목사님은 이번 집회를 위해 이현승 전도사를 비롯한 청년 일꾼들을 사전에 호주로 보내 문 목사를 도와 집회를 준비토록 지시하셨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며 시대로 나가 각 지역에 집회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과 DVD를 돌리며 노방전도에 매진하였다. 목사님께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다. 현지에도 착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실로 감사했다. 아니 이는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주의 종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일이라 믿는다. 우리가 오로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 편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어떤 지역에서든 항상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다.

공항에는 호주 예수중심교회 문정훈 목사와 시드니 예수중심교회 김경철 목사 및 청년들이 환영현수막을 들고 나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주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시드니 상공은 구름으로 덮여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바람이 몰아친다는 일기예보로 인해 한국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

해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시드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뉴질랜드로부터 찾아온 것이다. 새로운 복음의 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신 역사였다. 호주에 첫발을 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박 목사를 통하여 뉴질랜드의 문을 바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까운 집회 장소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손을 맞잡고 이번 집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이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호주 예수중심교회 청년들을 독려하신



공항 영접, 호주 교회 교역자 및 청년들



집회 장소에서 준비위원들과 합심기도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17~3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공이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거하는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포도원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매매할 수 없다며 아합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왕인 남편이 이런 사소한 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자 음모를 꾸밈니다. 그녀는 나봇이 살고 있는 곳의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봇을 제거하는 행동지침을 하달합니다. 두 명의 증인을 통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고소토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봇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 당시 관습대로 대역죄로 처형된 사람의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었기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그의 가족이 당할 심판에 대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컸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흘리라”(왕상21:19).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도 말갈게 씻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심판 선포에 아합은 놀라서 통회 자복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아합에게 내릴 심판의 재앙을 그의 아들인 요람의 시대에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거짓은 어두움이요 진실은 빛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代)인 요람의 시대에 내려지는 심판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10장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보낸 생도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합의 왕가를 전멸시키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은 후 왕이 된 그의 아들 요람을 활로 쏘아 죽여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또한 내시들은 예후의 뜻을 받들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고 그의 시체는 개가 먹게 됩니다. 예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합의 직계자손 70명을 보호하고 있는 관리에게 그들을 죽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두려워 예후에게 충성하기로 하고 명령대로 70인을 죽여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출34:6~7).

믿는 자들은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니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칭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으셨음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의 처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일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완전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만 죄에 따른 보응은 받아야 했습니다.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삼하12:10~11). 여러분,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사기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거짓말

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고, 이상한 다단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시가 1,500원하는 땅을 30만 원에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돈을 가로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더는 가슴앓이로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 소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 자들이 잘 될까요? 아니죠. 그런 자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 당장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묵인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놈~’ 하는 데 몇 년 걸리

는 것 뿐입니다. 사기 당한 자들이 얼마나 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막힌 사연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4:10~12).

성도를 도울지언정 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까? 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사기 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사기 치는 것이고, 성도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석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

성들이 선지자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삼상8:7),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을 때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행5:3).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25:45).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자가 되자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갈6:10)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사기 칠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사기를 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말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들랑 찾아가 잘못을 고하고, 배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늘 심비에 두십시오. 이왕이면 나를 하나님께 자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자가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선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민족해방지도자간디의 말로 오늘의 설교를 맺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에게 인종 차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평생을 인도독립을 위해 투쟁한 간디의 말입니다. “내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인도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 해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세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기 쳐서 부자 된 것 오래 못 갑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은 물론 우리의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 선하게 삽시다. 없어도 당당하게 삽시다. 그러면 마음이 유쾌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잠23:16).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

주식 본래의 '타당한 가격'을 그 주식의 '가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식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주식의 가치와 주식 가격 차이의 크기, 즉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를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 저평가도가 높을수록 주가의 상승여지가 큰 셈이므로 가치를 계산할 때 이 안전마진의 크기를 의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가치투자자의 목적은 주식 가격이 현재의 내재가치보다 쌀 때, 즉 안전마진이 클 경우 사게 됩니다. 주식의 현재 가치가 현재 가격에 비해 높다는 확신에서 주식을 매수하게 되므로, 가치에 대한 판단이 옳으면 그로 인한 상승잠재력은 좀 더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가치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주식이나 자산의 내재가치를 분석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가치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옵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의 저자 하워드 믹스는 "잘 사기만 하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내재가치의 평가가 정확하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가치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철학이 좋아서라거나, 사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만 합니다. 주식 가격은 크게 심리와 기술적 요인 두 가지에 의해 영향

받을 것입니다. 최악의 시기에도 상황을 잘 정리하여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려면 장기 자본과 강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은 사업이 이익을 낳는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과 재무제표를 해독하여 자산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지식에 있는 반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사는 것이 안전하고 잠재수익도 높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투자대상의 인기, 가격 등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재가치는 주식을 사는 날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심리와 기술적 요인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목사님께 늘 듣고 배워서 영원세계에 대한 가치를 잘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가 최고임을 알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 딸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영접(迎接)하는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요4:23) 우선적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신앙논객 ::

예수 이름이면 합격!

얼마 전 수능고사가 전국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수능 고사의 정식 명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이 말은 곧 대학(大學)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는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것보다 더 크고 전문적인 학문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꼭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접하는 다른 자격시험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번 수능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천국 시민 능력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자격시험', '예수 제자 검정시험'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모양, 저모양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결단코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나 다윗,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은혜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능력과 자격을 묻는 시험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 하면 그 결과는 100%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시험지에 우리 이름 대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쓴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시험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결과 발표가 있는 그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합격의 기쁨을 누립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신선한 영혼의 양식

얼마전 가족들과 마트에서 산 다양한 해산물과 회를 맛있게 먹고 집으로 왔다. 잘 때 즈음 아내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 화장실에 가서 새벽까지 구토를 하면서 들락날락했었다. 나 역시 다음날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도, 아내도 일주일가량을 회복이 되지 않아 고생하였다. 처음 걸려본 노로 바이러스는 굉장히 불편한 병이었다.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고 속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도 가려서 먹어야 했다. 앞으로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날 것은 잘 익혀서 먹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는 얼핏 '몸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에 신경을 쓰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육체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을 위한 양식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보

거나 듣는 경험은 정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에 대해서도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인데 말이다. 자극적인 음식만 좋아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자극적인 것만 보고 듣는다면 영혼에도 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신선한 음식이 몸에 좋듯이 매일의 신선한 말씀은 영혼에 좋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지만 덕분에 영혼이 먹는 신선한 양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과 기도는 영혼이 먹는 양식이다.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눅21:36)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무얼 먹지?' 라는 질문보다 영혼에게 신선한 양식을 주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위기는 기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 이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약 20,000km를 걸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한 전도자.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운 당대 지식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에는 다메섹에서의 회심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먼 사울은 이 사건 이후 바울이 되어 평생의 전도자가 되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다메섹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지금 그곳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이다. 뉴스를 통해 접한 '다마스쿠스(다메섹)'는 정말 처참했다. 도시의 형체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 국민들은 난민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시리아를 떠난 난민의 숫자가 40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하나 없던 이곳 시리아에 요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

고 있다. 시리아 곳곳에서는 난민들을 돕기 위한 NGO단체와 함께 교회가 생겼는데 가족들과 흩어진 난민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난민은 꿈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으로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천막교회로 찾아왔다고 한다. 여전히 시리아는 무슬림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여서 전도가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고 도시가 황폐해지면서 이 가운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은 그들을 돕는 여러 손길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시리아 난민 중 무슬림이었던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많은 기사를 보게 된다.

오늘도 시리아 전쟁의 위협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용감한 시리아인들과 그들의 전도자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이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자소서를 쓴다는 것

자소서. '자기소개서'의 줄임말이다. 요즘은 취업을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도 자소서가 중요하다. 올해에도 6명의 학생에게 자소서를 첨삭해 주었다. 자소서의 3~4개 문항들은 학생들의 3년간 행적을 가감 없이 묻는 질문들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자소서의 질문을 보며 좌절한다. 별 생각없이 학교를 다녔고, 애착을 가졌던 동아리도 없으며, 선생님들이 시켜서 억지로 봉사에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쓰기 전에 지난 3년을 돌아보라고 하였다. 자신의 3년이 적힌 학생종합기록부를 10번씩 읽으면서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들어갈 대학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지난 3년을 다시 반복할 것인지를 되물어보라 하였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학생들은 기억에서 지워진 자신들의 꿈과 열정, 장래희망을 조심스레 떠올렸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가졌던 꿈을 이야기

하며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때의 열정을 기억하며 멋지게 웃어 보인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만, 자신은 안 될 거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성적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라며 자신들이 떨어질 이유를 먼저 찾는 아이들에게 내가 한 이야기는, "너의 자소서를 읽은 교수님들은 분명히 네가 아니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너는 3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니까."였다. 생각의 힘은 매우 놀랍다. '내가 아니면 그 학교, 그 학과를 누가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아주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타성에 젖어 있고 있었던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은 대학 입학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20대의 삶을 그리면서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가 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각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그 결과, 내가 지도한 모든 아이들이 최소 1곳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였다.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들이 모두 지원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나는 당연히 될 사람이라는 생각. 그래서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많은 아이들을 다시 살게 하였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좌절했던 시간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낙망했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본래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넓은 창공을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 드넓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일어난다면,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위기는 기회다

어느 날 부터인가 체력이 고갈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래. 나에겐 힘이 필요해. 너무 지나치게 달려왔어. 이제 좀 쉬면서 천천히!" 열심히 일한 당신은 충분히 쉬 자격이 있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없이 깊은 쉼 속으로 빠져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생각에 비수처럼 스치는 한 마디, "병을 떠받들면 안 된다니까!" 늘 강조하시던 우리 목사님의 카랑카랑한 음성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몸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 어느 날은 흰개에게 또 어느 날은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며 자신과 줄다리기를 하는 중 내 의지와 내 믿음에 복종치 못하는 무력한 스스로에게 좀 화가 났습니다. 나의 무력한 육신을 길들여 복종케 하려고 어느 날 설악산 대청봉 등반을 몇몇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단한 걸음의 목적함을 몸으로 느끼며 채찍질하듯 정상을 정복하고, 오르던 길 따라 내려오며 놀라웠던 것은 '내 힘으로 오르지 못할 험한 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갈 수 있는 그런 길 말입니다. 그 후 제 몸은 잘 길들여져 제게 복종을 잘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자들은 대부분 무릎 뼈와 뼈 사이에서 뼈끼리 부딪치거나 굽히는 걸 막아주는 연골이 닳아 없어져 큰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계속 뛰는데 '사점'(Death Point)이라고 부르는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을 견뎌내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계속 뛸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의 설계도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당신은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기도원 산상집회

12월 11(월) ~ 14일(목), 호텔예약 12월 5일(화) 10시 정각 홈페이지(www.jcc.tv)

사랑의 김장 나누기



맛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떤 명인들이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김치가 있다. 바로 지난 11월 27일 인천교회에서 담은 김치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 첨가되었기에 아주 맛깔스러운 김치가 탄생한 것이다. 바로 '사랑'이 넘치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늘 이때가 되면 인천교회는 분주하다. 153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약 4,2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것을 다 절이고 씻고 물을 빼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김장 속에 넣을 재료들을 씻고 썰고 버무리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음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11월 27일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일이 시작되었다. 이날 대거 참석한 서울과 인천의 주의 종들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분업화된 빠른 손놀림에 김장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벌써 몇 해 동안 손을 맞춰보았기 때문이라. 잘 절여진 배추를 나르는 사람, 배추 속을 넣는 사람, 그것을 김장용 비닐봉투에 넣어 나르는 사람, 비닐봉투에 담긴 김치를 153스티커가 붙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테

이핑 하는 사람, 그것을 쌓아놓는 사람,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닦고 다니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사람 등으로 손발이 척척 맞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김장은 각 교구 전도사들을 통해 꼭 필요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2~3).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 주님은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배고프면 내가 먹듯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추우면 내가 입듯 헐벗은 이웃을 입혀야 하고,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듯 이웃도 살피라는 말씀이다. 153운동본부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다. 찬송과 웃음이 떠나지 않은 김장터에는 내 형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쳤다. 그래서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천하에 범사가 기원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열매를 따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오래 기다린 자다